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9월 7일 (제75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성경병법을 가지고 나가자

최근 우리나라 극장가에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있다. 바로 ‘명량’이다. 영화 ‘명량’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양한 재조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충(忠)’과 ‘애민(愛民)’을 꼽는데, 그는 민족을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하기를 자신의 아들의 죽음은 물론이요 자신의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국가와 부하들의 안위를 염려했던 그런 수준의 것이었다. 이 같은 이순신의 나라 사랑은 부하들에게 전염되고 백성들을 감동시키며 24전 24승이란 전설적인 업적으로 보답되었고, 그의 진심은 시대를 초월해 지금 우리세대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성경에도 수많은 전투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전투는 모두 사람의 전투력이 아닌 전쟁에 나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승

패가 갈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라. 양치기 소년과 완벽한 체격조건과 무기를 갖춘 전문 군인과의 싸움이다.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으니 싸움의 전세만으로 평가했을 때는 얼마나 불리한 싸움이었을까?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즉 믿음으로 싸웠고, 그렇기에 돌맹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출애굽 당시 아멜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런 침략에 당황했을 지도자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는 전쟁의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오른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겼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 들고 함께 중보하자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은 승리로 막을 내렸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도 전시를 맞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땅의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통일 기도성회’라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으니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성경병법, 즉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 넓은 시청광장을 우리가 어떻게 채운단 말인가?’, ‘추석 명절인데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의 조건에 연연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전쟁이니 그것을 채우시는 것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며, 그렇게 대단한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게 빛날 것이 아닌가 말이다.

혹시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집회를 이끌어 가거나 전도에 나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처럼 이 싸움을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의 두 팔을 받쳐 들듯 중보기도로 함께하면 어떨까? 불리한 전쟁, 험난한 전투에서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집회를 진두지휘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놓칠 수 없는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다.

때를 놓치지 말자! 지금은 우리가 전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 애쓰고 힘써야 할 때이니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에 전쟁을 원하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각자의 자리에서 막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 위에 밝히 드러내야 하리라!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17:47).

하인명
renming@daum.net

평화의 종소리

평화의 청아한 종소리 울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울리누나

새벽 교회당 종소리인양 울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종달새 봄노래 아지랑이 춤추며

목련꽃 피어나듯 울리누나 울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남북에 울리누나

세상에 울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만민이 박수치며 천사도 박수치누나

날짐승 우아한 군무

오케스트라 창공을 빛내고

평화의 종소리 노래하네

전쟁의 어둠을 사라졌다 순덕 최는아낙네

딸 아들 품에 안고 단잠을 이루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늘과 바다 산야가 주인을 부르니

남정네 아낙네 춤추며

주님 은혜 찬송함이

역사적 명작 이뤘네

평화의 비둘기가 날았다네

朋友

봉 우 컬 럼

대한민국의 장애를 고치자!

장애인 선교회에서 9월 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을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써달라며 헌금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장애인 선교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정말 기쁘다. 장애

인들까지 이렇게 성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니 이 성회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것을 대한민국의 장애를 고치는 일에 쓸게. 우리나라는 장애를 입은 것 아닌가? 반으로 잘려 분단되어 있으니 중증장애야. 또한 우리나라에 산재된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 사회적인 면도 그렇고, 인성 면에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로 고치고 치료하자.”

그렇다. 추석에 있을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우리나라 전반의 장애를 고치고 치료

하기 위한 기도회이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큰 장애는 분단된 대한민국이요, 그에 버금가는 장애는 이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신적인 장애이다. 불신과 반목, 당 짓는 것, 거짓과 위선, 음란 등, 이런 것들이 당장 치료되어야 할 장애요소들이다. 어쩌면 이 나라의 분단보다 내부의 정신적 장애가 더욱 심각한 것인지 모른다. 이 정신적 장애가 치료될 때 분단된 한반도 장애의 치료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에는 남녀노소, 거리를 불문하고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가자! 9월 8일 추석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으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자. 모이자! 9월 8일 추석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으로! 아름다운 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수1:10~18)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 어머니 팔순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 팔순잔치를 앞두고 우리 칠남매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많다보니 아롱이다롱이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호텔도 알아보고 이리저리 연락도 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 '뭐 그렇게 수선을 떠나? 칠순도 해드렸는데.' 하는 자식도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무슨 일에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자도 있고, 자기도 참여하지 않고, 남도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훼방자가 있더라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각자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 아이들과 너희 가족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외줄보다 삼겹줄이 강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 받았으니 ‘내 일은 끝났다’ 하고 뒷짐 지고 있지 말고,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나가 싸우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다른 지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내라고 격려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

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수1:16~18).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찌니라”(수

22:7~8). 사사기 12장에는 이와 반대의 무리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창48:22)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인 므낫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생활에서 특혜와 특권을 누렸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못된 습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자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붙잡은 공을 칭찬하며 스스로 낮아지자 화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가 되어 전쟁에 승리하고 나자 똑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분노했고, 군대를 동원해 에브라임 지파를 막치는 데로 학살했습니다(삿12). 기드온은 타협

적 해결로 무마하였으나 입다는 분개하여 결국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마나 참전했던 기드온 당시에 비해 입다의 경우 추호의 조력도 없이 트집만 잡는 에브라임의 처사가 어불성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에브라임은 42,000명의 전사자를 남기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기 됩니다.

이런 경우도 교회 안에서 자주 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괜히 생트집이나 잡고, 생색이나 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백

성에 공개 포함합니다.

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벽 쌓

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훼방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비난을 일삼으며 일하는 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멀리서 구경만 하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훼방자들과 방관자들은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결코 함께 누리지 못했고, 나중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5장에는 드보라가 메로스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저주했는지 압니까? 메로스가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가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목사의 공고가 나자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지요.

9월 8일 추석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있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

운 이 강산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려줘야 하기에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더욱이 훼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눈가리고 아웅 해도 안 되고, 생색만 내도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일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협력의 구도로 가자

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직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고, 노동이라 생각 말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 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권 학생이 동시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에 참여하러 본국으로 돌아가고, 아랍권 학생들은 행여 전쟁터에 끌려갈까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입니다. 이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국가를 위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려는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그러니 우리가 개최하는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회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합시다. 이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나비효과를 나타내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것이고, 머지않아 이 나라에 평화통일이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 내가 매일 기쁘게::

응답하라, 예수중심인들이여!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가평 고등학교’. 이 학교는 본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가이사 중학원’이 그것이다. 이름도 생경한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6.25전쟁이 한창이던 38선 인근. 패인 골짜기마다엔 젊은이들이 흘린 피와 살점들로 메워지고 있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얻고자 피아간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진 것이다. 가평 인근의 화악산은 그 처절함의 정점에 있었다. 경기도 내 최고봉으로서 그 유명한 철의 삼각지대를 아우르는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2년 3월, 포연이 자욱한 이곳에 돌연 학교가 세워졌다. 바로 ‘가이사 중학원’이다.

당시 갑작스럽게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전국에는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1951년 9월부터 이 지역 학생 150여 명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임시로 만든 천막 교실에서 급조한 교재로 자신과 민족의 꿈을 이어나갔다. 누군가는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려야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 땀을 흘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불타는 항학열은 당시 미 40사단장 클레랜드 장군을 감동시켰다. 그리하여 40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학교 건립을 위한 2달러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1만 5천여 명 전원이 이에 동참한 것이었다. 전 사단 병력이 말이다. 그 기금을 바탕으로

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학교는 지금껏 우리 사회의 수 없이 많은 일꾼을 양성하고 있다. 얼마 전, 전쟁이 끝나고 60여 년이 지나 학교를 방문한 참전 용사 데이빗 플레시 웅(翁)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윗세대의 희생을 감사히 여기길 바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불완전한 자유다. 휴전선 너머 3대 세습으로 이어진 북한의 존재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 폭탄이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북마전과 같은 답답한 현실을 헤쳐 나갈 길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군이 몰려왔을 때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작심하고 몰려든 모압-암몬 연합군대 앞을 막아선 여호사밋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근동지방을 휩쓸어버린 앗시리아 대군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나아가 이 땅의 안녕과 이 나라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 함께 부르짖어야 한다.

단언컨대 이번 ‘9·8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위기사회 증후군에 빠져 안이해져 버린 대한민국을 깨울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그 부르심 앞에 당신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신현명 목사

가자! 시청 앞 광장으로!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 서울시청 앞 광장은 너른 광장이라는 의미 이상을 갖는 곳이다. 그곳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기도 하지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목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 조회 1억부를 돌파했던 가수 ‘싸이’가 금의환향하였을 때, 그 곳은 한바탕 축제의 마당으로 변했었다. 그리고 지난 4월,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애통해할 때도 이곳은 애도 물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었다. 최근에 서울시청장은 25년 만에 방한한 교황의 집전지가 되어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축복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울시청광장은 우리에게 서울의 흔한 유명 관광 명소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서울시청광장에는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켜켜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각자 매진해있던 삶 속에서 나와 서울시청광장에서 하나가 되고 한다. ‘우리’라는 말의 참 뜻을 알게하는 장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갈 차례가 되었다. 2014년 9월 8일 낮 3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그 곳,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세월동안 대한민국의 열정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

던 그 곳에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통일을 위한 기도성회가 개최된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우리의 염원을 합심하여 보여줄 차례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던 이루어진다고 말하고는 한다. 우리 민족이 반세기 이상을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이다. 우리 민족의 바람대로 통일은 곧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다(히11:01).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왔었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말이다. 이제 그 오랜 기도를 응집시켜 응답받을 때가 왔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뜻을 모으자.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을 채웠던 1992년의 그 때처럼 힘을 합하자. 우리의 선봉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곧 상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가자! 서울시청광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자. 그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실천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자! 2014년 9월 8일 추석날, 서울시청광장으로!!

전훈지
ppjee@hanmail.net

::참된 깨달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말하길 “피아노는 80%까지 노력과 훈련으로 가능한데 100%의 실력은 어떤 훈련과 연습 가지고도 안 되고 피아노를 사랑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기계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100%의 완벽한 소리를 준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교 입학 후 기도원 영성훈련에 도착 첫째 날, ‘신학생 전원 대성전 뒤로 집합!’ 소리에 단숨에 달려갔지만, 늑장 부렸다고 전체기합! 우로 굴러! 좌로 굴러 30번! 동작이 틀렸다고 20번! 느리다고 다시 20번! 그날따라 비가온 뒤라 군데군데 웅덩이엔 물이 고여 있었고, 이리 저

리 구르면서 반죽이 잘된 머드 팩을 온 몸 에 듬뿍 발라야만 했고, 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때 심정은 솔직히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꺾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밤 저에게 그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못 참겠느냐? 그것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일 좀 해 주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잡아 주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 좀 잡아주렴.”이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롬5:5).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에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성훈련 마지막 날까지 ‘할렐루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 덕분이었지요.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9월 8일, 서울시청광장 평화통일 기도성회! 10월 3일 상암 월드컵경기장 전도집회! 내게 능력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뛰고 또 뛰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이 일 만큼은 못 하겠어요.”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아니오’가 어찌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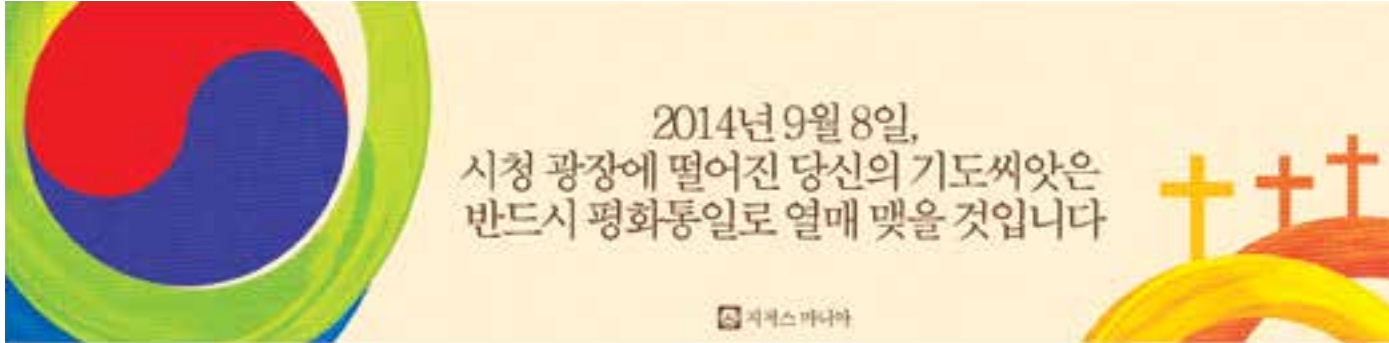
김정욱 전도사
jcc01115@naver.com



귀를 기울이세요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는 신년부흥사경회가 한창이었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등 각지에서 모여든 1,500여 명의 성도가 통성기도를 드린 뒤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1년 전 죽음을 앞둔 친구로부터 섬을 할 줄 모르는 아내를 위해 재산을 대신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중 약 100달러 정도 되는 돈을 훔쳤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00여명이 새벽 2시까지 남아 회개 기도를 이어갔고, 20여명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으로 일컬어지는 1907년 평양대부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 6월까지 평양 지역에서만 3만 명이 회심하였고, 1909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백만인 구령운동을 전개, 1910년 서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며 결신 카드에 이름을 적어낸 사람이 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때 전후로 전국에 950여개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고, 전국적인 금주운동이 전개되어 많은 술꾼들이 술을 과감히 끊었고, 도박꾼들과 오입쟁이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땅에 다시 한 번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선 이 도시에서 뜨거운 회개와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Jesus Centered International Unity

평화통일 기도성회

Prayer Assembly for Peaceful Unification

9월 8일(추석) 오후3시
가짜! 서울시청광장으로